



濁流清論

제61호 2020년 11월 5일(목)

발행인: 김 상 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혼란의 시대를 넘어	1
<u>특집</u> 탁류청론 좌담회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의 미래>	4
<u>소통과 담론</u> 신임교원 소개	15
<u>교수들의 건강칼럼</u> 한 회 쉽니다	-
<u>소식</u> - 교수회 총장평가 설문조사 실시	20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혼란의 시대를 넘어

전자공학과 김 상 배

혼란의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것일 뿐, 이 혼란의 밑바탕에는 더 근원적인 원인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과 같이 인류에게 닥친 재앙의 근원에 인간들의 근시안적 탐욕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인구의 폭증과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인간의 탐욕에 온 지구와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병 중이며, 나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발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다. 그 경고들을 애써 외면한 채 관성에 젖어 탐욕의 외길을 달려온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으로 홍역을 앓았다. 폭염과 혹한에도 시달렸다. 유례 없는 장마와 태풍에도 할퀴어졌다. 지구촌 전역에서 산불, 홍수, 극심한 기후 변화, 생태계의 파괴, 환경오염, 멸종 위기종의 증가 등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한 악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상은 무너졌고, 경제는 어려워져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졌다. 사회적 혼란은 분노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는 많은 나라들에서 폭력적 정권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분노지수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여야 하는 부문에서는 어려움이 더 크다. 문화와 예술은 실종 위기에 몰렸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효과가 높은 교육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제는 배움의 시대이다.

우리는 지구의 자원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무한한 것처럼 보였던 공기도 유한하여 코로나19 감염의 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산불의 연기가 전 미국을 덮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나타난 뜻밖의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은 이 모두가 인간들의 탐욕의 산물임을 이 맑은 가을 하늘보다 더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닷물의 오염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어패류에 의한 식탁 위에서의 반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의 홍수가 바닷물의 염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 양식 어장들이 황폐화될 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안다. 무한한 자원이라 생각했던 공기가, 바닷물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혼란의 시대가 가져다 준 뼈아프게 값진 교훈이다.

이제 우리는 배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견지해 온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과 관습과 관성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혼란의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겹겹히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찾고 또 찾아야 한다. 그러한 배움을 거쳐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렇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과 희생시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성찰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근원적 가치를 향하여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근본틀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해왔던 가정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

리가 세워왔던 질서와 체제가 미래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장벽들을 넘어서 아무 제한조건 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사회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한 인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사회, 경제, 정치 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과 윤리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구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한 새로운 구상들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을 넘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한 것, 오늘을 위한 것을 넘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내일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시야를 좁혀 교육체제를 살펴보아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유아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 교육까지 각 단계별로 어떠한 교육철학으로 임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의 교육 단계가, 분야별로 나누어진 교육체제가 바뀔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각 분야별로 어떤 교육 목표 아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교육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교사, 교수진이 필요하고, 어떤 행정 기능이 필요한가? 사회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학교체제가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과 정보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듯 교육에서도 우리는 근원적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학교는 교사나 교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잘 배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인지능력을 길러주어

야 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대학생들이라면,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는 경험을 통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척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이러한 인재상에 맞추어 교수진, 교육과정, 교재, 교육방법, 교육환경,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배경지식 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

바야흐로 개혁의 시대이다.

사회구조와 질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개혁은 멀고도 험난한 일이 된다. 언제나 안정된 사회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힘의 균형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복잡다기한 힘들의 균형이다.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조직 사이의 균형이고, 사람들의 관습과 행동 양식 사이의 균형이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다. 이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 균형이다. 그래서 그 균형을 깨기가 어렵다.

그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이다. 현실과의 타협 없이 이상을 추구할 수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구상할 수 있고,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개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특집

탁류청론 좌담회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의 미래>

- 취 지 :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 대학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좌담에서는 코로나19 시대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보려 한다.
- 참 석 자 : 강경란(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대학교육혁신원장), 김상배(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교수회 의장), (가나다 순) 박성빈(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박영동(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신종호(다산학부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장)
- 진행 및 정리 : 박만규(인문대학 불어분문학과)
- 시 간 : 2020년 9월 14일(월) 17:00~18:40
- 장 소 : 교수회 사무실(울곡관 263호)

목 차

- | | |
|-----------------------------|-------------------|
| 1 — 녹화, 실시간, 혼합형 강의의 학습효과는? | 5 — 온라인 강의의 수업 태도 |
| 2 — 아주 Bb의 출석확인 시스템 | 6 — 시험 방식 |
| 3 — 블렌디드 러닝 | 7 — 향후 교수, 학생 지원책 |
| 4 — 대면수업은 불가능한가? | |

1 — 녹화, 실시간, 혼합형의 학습효과는?

박만규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고 초창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한 경험과 쏟아지는 불만사항들이 있었는데, 한 학기를 거쳐 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학기에 들어선 뒤에도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학교 행정당국에 가할 수 있는 비판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시스템화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불만을 최소화하는 어느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교수님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교수님들과 함께 대처

방법을 공유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역시 시스템으로 잘 정착을 시켜야만 할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아주대학이 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로 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죠. 제 생각에는 우선 강경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경란 네, 뉴노멀 교육모델 TF가 6월 18일 즈음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노트북을 주로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를 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이니까 평상시보다 분명히 낮게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비대면수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 장소의 자유로움과 반복 수업의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았고, 단점은 과제, 출석 확인에 대한 과제를 많이 내주시니

까 그것에 대한 학습부담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었던 것이에요.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높았던 방법은 동영상 강의이고 가장 나빴던 것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1학기말이 되어 나온 실제 강의평가의 결과는 이 조사 결과와는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강의평가 점수를 보면 동영상 강의가 가장 바닥에 있어요. 오히려 실시간 화상수업이 더 동영상 강의 보다 평균값이 높았어요. **실시간과 동영상을 결합 강의가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교수 상호작용 도움에 있어서 실시간 화상수업이 기대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는 분들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비디오 꺼 놓고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강의하신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만규 동영상 강의가 평가가 가장 안 좋은 것은 그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군요?

강경란 네. 처음 1주에 83.8%였던 동영상 강의가 13주에는 50%로 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화상수업과 혼합형으로 바뀌 버린 거예요. 동영상 강의로 일방적 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시간 강의는 오히려 늘고 처음에는 1%에 불과하던 실시간과 동영상의 혼합형이 나중에는 20%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실시간 수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던 거죠.

박영동 저희 과 학생들의 경우는, 아주 초기에는 실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서 트래픽으로 끊어지니까 소리가 안 들리고... 학기 중간쯤 가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만큼 문제가 심각했어요.

강경란 실시간 강의한 것 녹화해서 올리셨나요?

박영동 올렸죠. 그렇지만 Kaltura가 버벅거리고 들리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실시간 간의 녹화 대신 안정적인 동영상 강의가 낫겠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시간의 문제보다는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수업의 시간대, 또 참여하는 학생수도 트래픽에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강경란 맞아요. 예컨대 월요일 오전에는 인터넷 트래픽이 전체적으로 확 높을 수도 있죠.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이메일을 보고 하니까.

박만규 결국은 트래픽의 문제인데 이것은 과연 학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강경란 송신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신자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단말의 성능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죠.

박만규 교수님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나요?

강경란 교수님들이 비디오 수업 운영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이 무엇이나 했더니, **동영상 제작과 제작 준비 관련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썼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미숙한 것이었어요. 이제 2학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극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학생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내는 과제가 많아서 학생들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학생과 상호작용 보안을 위해서 이메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 학생의 참여도가 2.9점이니까 보통 수준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호작용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육 학습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보는데 교수님들의 설문 응답은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3.3)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분이 보통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물론 1학기 때의 결과입니다.

박만규 그렇군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강경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단과대학마다 약간 다른데요, **사회대와 인문대가 가장 크고** 정통대나 공대는 실습을 빼면 거의 이론을 전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도 보면 **인문대는 동영상 강의가 아예 없이, 다 실시간 혹은 혼합**이에요. 반면에 **공대는 20%, 정통대는 24.8%, 약대는 66%로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이론 전달이 주로 있는 학과는 동영상 강의에 교육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가려고 하십니다.

김상배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지난 학기를 요약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재미는 없으면서

학습성과는 완전히 바닥인 그런 학기였어요. 작년 학생들 50명 정도 진도시험을 처음 보았을 적에 14명이 90점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전부 61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90점 이상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2등이 65점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비율로 똑같이 61점을 F학점의 기준점으로 하면 90%가 F입니다.

박영동 그렇게 못 하셨죠?

김상배 못 했죠. 그런데 왜 학습성과가 이렇게 엉망이 나왔냐는 말이죠. 교수들의 가르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차의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다져나가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시험1을 본 뒤에 이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을 확인하고 진도시험2를 보고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진도시험3을 보게 하는 방식이죠. 진도시험3을 볼 때쯤 되면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으로 다져져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50명 정도에서 14명 이상이 90점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학기에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시험을 못 보게 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구두시험(oral test)을 봤어요.

강경란 실시간으로 해서?

김상배 아뇨, 학교로 한 명씩 불렀죠. 하루 종일. 그런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24시간 Take-Home Exam을 냈어요. 그 성적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학기말시험 때까지 예년처럼 지속적으로 실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결국 진도시험3을 보니까 성적이 바닥으로 내려앉더라구요.

박만규 대단하십니다.

강경란 저는 출석확인 퀴즈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일일이 피드백을 했어요. 네다섯 시간 걸리더군요. 옛날엔 수업 후에 질문 있는 학생들에게 답변해 주면 끝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각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게 되어 오히려 일대일 개인과외를 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김상배 그렇죠. 다만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면을 통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시험을 늦게 보는 바람에 너무 늦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진도시험1,2는 다시 풀어 내게 시켜서 다 일일이 이메일로 피드백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테스트, 오픈북 테스트에 임할 때 상대적으로 공부할 때 철저하게 해서 임해요. 그러니까 학기말 시험을 볼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시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 — 아주 Bb의 출석확인 시스템

박만규 강의 문제로 출발해서 이제 시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오셨네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트래픽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지난 학기보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녹화강의에서 아이들이 과제 부담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녹화강의는 이게 또 문제인데 교수들도 지금, 강경란 교수님은 정말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해줬지만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강경란 맞아요.

박만규 그렇다면, 교수가 간단한 퀴즈를 아주Bb에서 만들고 바로 저장을 하고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와서 풀고, 그럼 본 결과가 그대로 채점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스템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란 제가 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이미 그 기능이 있어요. 퀴즈를 객관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자동채점이 다 됩니다. 저는 주관식으로 쓰게 하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신종호 자동채점도 되고 성적 센터에 다 들어가고.

박만규 그렇군요! 그게 있으면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다섯 문제를 냈는데 세 문제를 정답으로 하면 출석 인정,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퀴즈를 푸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강경란 그런데 이제 객관식은 자기가 몰라도 친구한테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신중호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성 때문에.

박만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세트를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랜덤하게 제시하도록 하면 될 텐데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지금 되나요?

신중호 네. 가능합니다.

박만규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교수는 얼마나 되나요?

강경란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 매뉴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도, 교육도 하고요.

박만규 그러면 그건 홍보 부족인데, 이용하는 교수가 전체 교수의 몇 퍼센트인가요?

강경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학과에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소문내고 다니고요.

신중호 센터장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안 되었다 그러고, 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던져 드려도 관심 없어 하시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박만규 센터장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수들이 원래 그래요. 그럼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메일로 한번 홍보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따로 하든지...

신중호 교육도 했고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이 아주Bb에 교수님들이 다 들어오시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가이드도 올려놔음에도 불구하고.

강경란 저희 과에서도, 저희 과가 소프트웨어하고 친한 학과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박만규 그 정도잖아요, 소프트웨어학과에서도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이메일로 안내하는 것,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안내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신중호 사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데 모아 놓은 사이트

도 만들어 놔어요. 센터에서도 만들어 놓았고요. Bb에 코스에 가면 오른쪽에 다, 대문에 걸어놔습니다.

박만규 그렇군요. 이제 강의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죠.

3 — 블렌디드 러닝

박성빈 우리가 지금 최선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인데, 제 경우에는 초반보다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전녹화강의에서는 진도를 나가고, 실시간 강의에서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시사뉴스 등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란 원 플러스 원, 즉 블렌디드 러닝이네요.

박성빈 네. 그런데 학생들은 실시간 강의에서 생각보다 질문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강의내용을 요약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시간 강의에서 사회과학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편이죠. 저 나름대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방법 등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람직한 강의-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저만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답인데 여기로 가야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 스스로 강의내용과 과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수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소통의 방식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규 박성빈 교수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수의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전녹화 하고 실시간 때는 토론하고 가르쳐 줘야죠. 나중에 또 피드백도 해야죠. 결국 얼마만큼 **시스템적으로 교수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요.**

박성빈 온라인 과목이든, 대면수업이든, 결국에는 **수강생 인원을 줄여 주면 제일 좋겠죠.** 결과적으로는 일이십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교수가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강생이 많아지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도에 대한 밀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대면수업 등을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대면수업을 시도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4 — 대면수업은 불가능한가?

박영동 며칠 전 교수님들이 휴게실에서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해당 과는 실험에 안 오면 F를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학과와의 갈등을 초래해요. 교육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hands-on experience가 어떻게 화상으로 가능하겠어요?**

지난 학기에는 1학년 실험을 우리 과에서는 실시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말로는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면 문제가 많다고 강력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못한 과들도 많습니다. 대면시험만 해도 안 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한다고 하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몇 주를 이러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해도 좋다, 대신 못 오는 사람한테는 방법을 준비해라. 물론 학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상배 실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전자공학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장비예요. 그런데 그걸 2학년 때 하는데 지난 2학년 1학기 수업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쓸 줄 아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조차도 실험 쪽에서는 못 가르치고 넘어간 거죠.

박성빈 학교 측이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조금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면, 대면 실험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수들이 필요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하면서, 좋은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수들에게 여러 가지 메뉴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면 시험을 보려면 애들이 학교에 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숙소가 필요한데 찜질방에서 잔다고 하더라도요. 교수가 뭔가 시도하려고 해도, 이런 저런 지원이 안

되므로, 뭔가 도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경란 그러다가 또 옮기고 옮길까봐.

박성빈 학교 왔다가 또 아주대학교 뉴스에 한 번 나올까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 기간에 기숙사에서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옵션을 알려 주었어야죠. 학생과 교수에게.

물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수용의 한계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들은 자율권을 원해요. 요컨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교수들에게는 자율이라고 해놓고서 아무 메뉴도 없이 그냥 zoom 시스템, 아주Bb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교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는 곤란해요. 학교 당국은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의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강경란 재료가 없어요. 메뉴판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없어요.

김상배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안전과 교육의 성과라는 trade-off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서 최대한 안전한 전제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는 학교가 안전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바람에 교육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게끔 강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도 못 하고,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무치에 학교는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각 교수들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거의 막아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박만규 사실상 이런 문제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교수회에서 지난 7월에 열렸던 교수회 회의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수업운영 기획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했잖아요. [교수회 공문 제20-7호(2020.7.14.)]** 그런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죠?**

김상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박영동 예를 들면 제가 혹시 방학 동안에 이렇게 가능할까 해서 학장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학생들의 4분의 1을 학교에 오게 하면 충분한가. 그러면 아예 4분의 1을 조직적으로. 왜냐하면 실험만 하는 학생들은 실험만 가르치기도 힘들고 다른 수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4분의 1 정도가 항상 오면서 교대로 실시하면 적어도 몇 달 중에 한 달은 학생들이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경란 그런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지난 번 다산관에 확진된 학생이 왔다 갔기 때문에 전체 교수들 다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잖아요. 안전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한 번 사건이 터지면 학교가 거의 정지 상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영동 아니요. 정지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죠. 어차피 지금 온라인인데 집에 가서 하면 되죠.

강경란 그러면 교수들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 준비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교수들한테 다시 또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김상배 어차피 그래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몇 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교육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상황에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박만규 그게 시스템이고, 매뉴얼이에요.

강경란 왜냐하면 교무회의에서 논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는 맥락에서 교무회의나 이런 데서 어떤 고민을 했던 거냐 하면 건물 안에 동시에 들어오는 학생 수도 중요한데 교수님들은 자기 수업만 하시잖아요. 팔달관 325호에서 강의하고 원천관 몇 호에서 강의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내 강의실 안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번지게 되면 팔달관 10층 건물에 강의동이 4층 이렇게 이상 되니까 이게 자칫 백 명, 이백 명, 삼백 명 이런 게 탑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보이니까 그들 사이에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complexity가 너무

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박만규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논의의 결국 최종 작업은 바로 디테일이에요.**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악마도 디테일에 있어요. 요컨대 모든 일에 대한 선악의 판단은 오직 세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디테일을 추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 두 분 교수님들이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실험 교육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정 배수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3배수나 4배수. 그러면 우리 아주대학에 있는 모든 건물을 찾아서 그 과목 학생들의 3배수 내지 4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보니 일부 있고 많은 경우 없다고 쳐요. 그러면 없을 때는 다시 **인원수를 분반하고 각 반을 수용 가능하도록 시간대를 분산하여 배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끝까지 디테일을 물고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본부가 그동안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3배수, 4배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강의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의 불만이 많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지난간 이야기고,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는 결국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그걸 허용하도록 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나요? 어떤가요?

김상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실험을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학기에 실험을 12개를 한다 하면 도저히 12개의 실험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실험 1,2,3,4~12까지 중에서 어떤 것들은 반드시 hands-on experience가 필요하니까 이런 실험은 대면 실험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실험으로 하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주면 교수들이 학습성공률 maximize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강경란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했다가?

김상배 그렇죠. 저희는 반도체 실험장비가 6대밖에 없어서 6명만 들어가게 하고 time-sharing을 하는 거예요. 조교가 좀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 월요일 반이라고 하면 4개의 분반을 월요일에 만드는 거예요.

3시간씩. 4개의 분반을 만들어서 6명씩 들어가서 24명이 실험을 할 수 있게.

강경란 그런데 그 한 실험을 며칠 동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강생이 60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상배 그러니까 한 반이 보통 24명 정도이니까 월요일 반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정도까지 time-sharing을 해서 가는 거죠.

강경란 그러면 분반이 여러 개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상배 그렇죠. 그러니까 4반이니까 월화수목 4일을 그렇게 가는 거죠.

신종호 그럼 다른 수업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김상배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박만규 그런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요컨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회의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역에 너무 방점이 주어진 나머지, 교육으로 가려는 의지가 다소 약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아주대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치열한 논쟁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구해서 지금이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이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요. 성공한다면 언론에도 나올 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주대학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니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는 거죠, 대안도 있는 거죠.

강경란 다만 그것을 교무팀에 맡기시면 안 돼요. 교무팀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배 교무팀은 가이드라인만 주란 것이지요. 제가 지난 학기 내내 강조한 이야기가 **학교는 가이드라인만 줘라,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교수들과 각 학과가 최대한으로 교육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게 해라** 이거였어요. 찾아서 하면 되지. 저희 반도체 실험처럼 그렇게 찾

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실험도 마찬가지로거든요. 다른 실험도 정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험의 반은 온라인으로 하고 진짜 중요한 반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trade-off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난 학기에는 학교가 그런 trade-off의 여지를 전혀 주지를 않았다고요.

박영동 학교가 학생 몇 명을 온 캠퍼스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가 원하는 건 실제로 0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만 명의 4분의 1은 와도 괜찮다는 가정을 하면 4분의 1은 항상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4분의 1도 자신이 없죠?

강경란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순간 아마 여기 확진자 수가.

박영동 그런데 4분의 1도 못 모이면 실제로 못 모이는 거죠. 한꺼번에.

박만규 이제 4분의 1의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니까요.

김상배 그런데 일단 실험도 나눠서 하면 실제로 4분의 1이 와서 효과가 나지만 실제로 그 시간대에 학교에 있는 학생 수는 그 팀을 예를 들어서 4팀으로 쪼갰다고 하면 10분의 1이 오는 거죠.

박영동 그런데 전자과에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 말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가 평소에 만 명 다 안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생을 캠퍼스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방법이 나올 텐데 지금은 실제로는 그게 0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커요.

박성빈 다른 대학들, 제가 알기로는 연대, 고대, 인하대 등은 우리보다는 대면수업을 많이 늘리는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문·사회대는 실험실습이 그다지 필요 없으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라는 식의 본보 측의 권고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수강생이 많으면 어려워요. 60명 이상이 되면 부분적으로 대면수업을 하고 싶어도, 강의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대학교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2학

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낸 방침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잘 한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좀 더 교육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지나치게 방어적인 느낌이 들어요.

박만규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성 때문이죠.

박영동 실제로 그럼 어떤 책임을 지게 돼요?

강경란 법적 책임은 없어요.

박성빈 뉴스에 나오면 안 좋겠죠.

박만규 그렇죠. 우선 아주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일부 공간이 폐쇄됐다는지 하는 보도가 나오면, 학교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행정적인 비용 같은 것들이 다 책임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무처장이나, 총무처장 혹은 학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공동 책임인 건데 이렇게 되면 충분히 행정과 트에서도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성빈 교수는 자율권을 원하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해야 돼요.** 지금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박만규 교수들이 1학기 때 교무처에서 오는 이메일을 보면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책임소재는 확실히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교무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이 아닐까 해요.

박성빈 맞아요.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경계선이 흐리멍텅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캡스톤 디자인 과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요새 학습의 동기 부여가 잘 안 된다는 호소를 많이 해요. 사전녹화강의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활리듬이 없어지고, 낮 12시까지 자고 그런 학생

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 온라인 강의의 수업 태도

강경란 그러니까 타 대학 사례인데 10시 수업이어서 비디오를 켜라고 했더니 “이 아침에 수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비디오를 켜라고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대면수업이었으면 당연히 학교에 나왔어야 될 시간인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박만규 학생들의 불만은 충분히 고려해줘야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항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 수업을 했는데 한 삼분의 일 정도가 비디오를 켜지 않길래 물어보면 대개 고장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 시간까지 그런 변명을 하는 학생들이 있길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이제 일상 생활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가 다 강의실에 있다면 함께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전제 하에서 다 비디오를 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비디오를 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순간 다 켜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자,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을 항의하지 불합리하지 않은 것은 잘 들어요.

박영동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신종호 나름의 교실 수업에서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수업의 룰이 있는 것처럼 학과 차원에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고, 교수는 어떤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매뉴얼 제공함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면수업을 왜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수업이라는 게 단순 지식 전달의 측면이냐 아니면 어떤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상호작용 이런 접점이냐 라는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영동 요즘 학생들은 공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발표해 주면 약간 불만스러워도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중호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계획서에 그러한 규칙들을 정해서 첫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6 — 시험 방식

박만규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난 번 인하대의대 부정 사태가 굉장히 크게 뉴스화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면 오픈북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목들 중에는, 사유의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들도 있고, 기본적인 지식들의 숙지와 숙련된 기능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오프라인 시험이죠. 하지만 이것을 온라인에서 볼 수밖에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것을 너무 교수들 각자의 노력 영역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학생들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수들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지책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사례를 좀 공유해주시겠어요?

강경란 전자과는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셨잖아요? 그런 온라인 카메라 설치해서 시험 보는 학생 매뉴얼, 교수자 매뉴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셨던데. 제과목도 이론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적합했던 과목인데 중간고사는 못 봤어요. 중간고사는 너무 부담이 커서. 저는 정말 야외에 책상 깔아놓고 시험 볼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기말고사는 시험을 봤는데 사실 부담이, 재정적인 비용이 아니라 훨씬 더 부담이 되었던 게 시험 보기로 한 3주 전부터 ‘자, 이제 이렇게 시험 볼 거야, 자 비디오 카메라 테스트 하자, 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집에 웹캠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미디어 카메라처럼 쓸 수 있으니까 하자’하면서 미리 시험 전에 저는 동영상 강의였지만 실시간 화상수업을 해서 애들을 다 켜게 한 다음에 그래 너 이건 좋다, 이 자세 좋다, 이건 안 된다, 고쳐라. 이거 다 리뷰해가지고 시험 당일 날은 두 반에 120명이 시험이었는데,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수학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

에 학교에 와야 하는 애들은 오는 것으로 해서 오프라인 강의실 1개를 빌려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25명씩 나누어서 TA 배정을 해서 줌 세션 방을 별도로 다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한 시간 안에 빠듯하게 써야 되는 분량으로 냈어요. 종료하면 답안을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조교가 확인하면 퇴장하는 식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한 건 ‘시험을 공정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해라.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가 네가 공정하게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식으로 배치해서 시험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더 성실하게 다 하더라고요. 시험은 무사히 끝났는데 진짜 노트북 4대 빌려 가지고 조교들 하나씩 다 앉아서 세팅하게 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박영동 저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다른데. 조교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시험 중 촬영한 비디오를 올릴 거니까 학생들 중에서 시비가 있으면 학생들이 답해라. 시험 보는 응시장면을 그냥 수업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강경란 저는 하나하나 캡처를 다 했어요. 한 시간 시험 보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박영동 그러니까 시험은 컴퓨터로 보고 핸드폰은 따로 나눠서 핸드폰으로 Zoom으로 들어와라. 시험 보는 장면엔 네 얼굴과 모습과 컴퓨터와 손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자세로 해서 위치에 셋업을 하라고 하니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인데 그 시험은 Bb로 냈어요. Bb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대신 주관식으로 작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강경란 저는 종이에서 쓰게 해서 찍었어요.

박영동 저는 종이가 아니고 Bb에 쓰게 했는데 별 불만이 없었고. 일반화학 시험 중간고사에 문제가 크게 있었어요. 한 1,200명 정도가 동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서버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봤어요. 그리고 각자 반으로 나눠서 하고 기말에도 각자 반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었고. 그래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오프라인이 앞서 얘기했지만 허가가 잘 안 나고, 우리 1학년 때 마지막, 마지막 가서 포기한 반들도 있고 거의 마지막에 허가가 되었어요. 2학기에도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김상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온라인 시험도 오픈북에 가깝고 부정행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하면, 분명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교육일수록 시험을 자주 보고 피드백을 강하게 줘야 학습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학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박영동 학생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지로 와서 보면, 컴퓨터로 보더라도, 학생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서 보면 시험 태도가 확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컴퓨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특정한 공간에서 하면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지난 학기의 경험에 의하면 집에서 치른 학생들 성적이 제일 나빴습니다.

박만규 그렇군요. 저는 온라인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똑같으면 자기들끼리 교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4 배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답안지도 네 종류가 되고 답안지의 채점과 관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이 교수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수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 향후 교수, 학생 지원책

박만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디테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필요하면 의사결정기구들도 만들어 가면서 시스템을 갖추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의 경우와 학생의 경우. 우선 학생의 경우는 학생들 불만이 있는데 학생들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치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웹캠과 마이크 같은 것

을 미리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었으면 웹캠이 없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때, 강의 준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그 중간에 수많은 피드백을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의 어떤 체계적인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배 그런데 이제 그것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학교는 지난 학기에 방역과 교육성과, 이 둘의 균형을 잡는 데에서 균형추가 안정 쪽에 너무 강하게 주어져서 교육성과 쪽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교육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성과를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지난 학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세를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박영동 좋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캠퍼스에 와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아직 1학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학교에 오지 못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신입생 환영회 비슷한 형태의 계기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너무 그 학생들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학생들 간의 상호 소통도 부족한 것 또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을 작게라도 10명 정도씩 불러서 학교를 오게 해서 교수들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상배 커다란 강의실은 적어도 스무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으니까 열 명 정도라도 열 명씩 한 지도 교수가 두 번 정도 품을 팔면 적어도 한 시간 정도씩은, 열 명 열 명해서 두 번 정도. 스무 명 정도의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박영동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정말 우리 학교구나 하는 생각들을 알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학생들끼리의 interaction도 중요하거든요.

박만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에서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 학생들을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란 또 학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박만규 학과, 단대, 중앙 행정부서에서 다 동원이 되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상배 신입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져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박만규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과는 지난주에 Zoom으로 개강총회를 했어요.

신중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 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목 관련하여 잘 따라가지 못하면 전공에 들어가서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 튜터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경란 죄송한데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했는데요, 정말 49명, 많아 봐야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33개 학과에 3명의 튜터를 주면서 전공과목을 돌봐주라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전공에서도 기초과목에서의 튜터는 좋은데 결국은 기초과목으로만 튜터 서비스가 가고 전공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박영동 멀지도 않아 보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자기 동급생끼리, 아까 그 이야기처럼 정말로 신경을 써야 돼요.

박만규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으로 꼭 한 마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빈 수강생 숫자를 줄이고 개설과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본부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학생 숫자가 많으면 케어가 안 되거든요. 튜터라

도 붙여주든가 하면 좋겠어요.

김상배 우리 교수진은 흔히 좋은 강의자료 만들어 잘 가르치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근본 목표가 교수들이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교수들의 임무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자료 만드는 데에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콘텐츠 전문가이지 온라인 강의자료 제작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강의가 강의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강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활용하여 교수들이 강의자료 만드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은 비슷한 이유로 실력을 쌓아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실력을 쌓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지,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코칭해 주지 않으면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워요. 저학년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나면 고학년 과정, 나아가서 졸업 후에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확대되면, 우리가 이러한 방향 전환을 빨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공동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강의 자료는 공유하고, 외부의 우수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에 쏟는 노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코칭을 통해 배우는 능력을 향상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가르침을 넘어 잘 배우는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만규 모든 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신임교원 소개(가나다순)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길 호 영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신임교원 길호영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 후,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센터에서 전임의와 진료교수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취통증의학 중 에서 통증을 전공하고 있으며, 척추 시술과 교통사고 이후 만성 난치성 통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난치성 통증과 관련된 뇌영상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전임교원이 되어 많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교수님들과 저희 의과대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와 진료, 학생 교육에 힘쓰고 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김 주 현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재무전공 신임교원 김주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두 곳의 외국계 금융사에서 픽스드 인컴 트레이더로 재직했습니다. 재직 중 성균관대학교의 석사 과정 입학이 계기가 되어, 동 대학원의 박사과정과 Texas A&M 대학 방문 연구원 등을 거쳐, 2020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대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불확실성이 각종 자산 가격이나 재무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최근 두 논문이 미국 재무 학계의 권위 있는 컨퍼런스에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픽스드 인컴 시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살려, 좋은 연구와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학업이나 실무에 대해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김 희 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간호대학에 부임한 신임교원 김희준입니다. 서울대 간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서울병원 내과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두바이에 협력병원 개원멤버로 파견받아 일한 바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Towson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관심은 다양한 인종간 또는 같은 인종내에서의 실험적 통증 민감도, 통증의 정도, 그리고 관련 요인의 차이 등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불균형을 규명하고 불균형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Health Communication 분야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미국내 다양한 인종간의 인지된 의료진과의 health communication quality와 관련요인 규명 및 비교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다양한 분야 선생님들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 박재연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에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임용된 박재연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술사학으로 전공을 변경한 제게 파리 1대학은 다시 학사 과정부터 공부한다는 조건 하에 입학할 허가를 주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프랑스 대학의 빠박한 학부 과정을 다시 따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으나, 파리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생생한 문화예술의 현장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1대학 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에서 <벨 에포크 시기 자연주의 풍속화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식민주의 문화예술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리고등사회과학원 문화인류학과에서 ‘프랑스령 알제리의 미술제도’를 다룬 박사준비과정(M2) 논문을 완성하였고, 분에 넘치게도 최우수 논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프랑스어권 문화와 예술의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저는 파리 1대학에서 5년간의 박사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국립 알제 미술관의 컬렉션 조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귀국 후 여러 대학에서 미술사, 전시, 박물관학에 대한 강의를 하며 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유통소비재로서의 예술의 개념과 문화 수용 양태, 예술 제도와 시장의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관련 이슈를 부지런히 좇으며, 프랑스어권의 현실과 우리 현장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예술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과 글로 풀어내는 동시에, 도시 재생, 전시 디스플레이 기술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영역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하여 불어권 아프리카와 같이 제가 경험한 사회와 문화를 진지하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며, 신선하고 참신한 방식의 교육을 시도하는 연구자가 되려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젊은 대학,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학기 개강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시기이지만, 오래전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었던 가족,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 임용 소식을 전해주셨던 메일과, 임용장과 함께 건네주신 엽서에 담겨있던 ‘아주가족’이라는 메시지가 새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아주대학교의 전통과 위상에 부끄럽지 않은 연구와 수업을 통해 학교 발전에 작은 노력을 보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소재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학기 교통시스템공학과 신입교원 소재현입니다. 저는 본교 교통시스템공학과(학사)와 건설교통공학과(석사)를 졸업한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U.Virgi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플로리다아틀란틱대학교와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에서 Post-Doc. 및 연구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본교 신입교원 임용 전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교통연구팀에 재직하며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분야의 각종 정책과제 및 연구개발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대학원 과정과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교수 기간,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스마트시티 개념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반

도시교통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첨단교통체계,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곧 우리 주변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이며 그에 따라 풀어야 할 이슈들과 과제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아주대학교 역시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첨단교통 분야 연구사업들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독일을 거치며 쌓아온 저의 첨단교통 분야의 연구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주도를 위한 아주대학교의 연구역량 강화와 인재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오 상 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오상은입니다. 이렇게 탁류청론 지면을 통해 선임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14년 8월에 석사학위를,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조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아주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모바일 IoT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자가 직면하고있는 IoT 환경에서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동시협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만들어주는 모바일 플랫폼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모바일 네트워킹, 파워 소모, 실시간성 등 모바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스템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방면 힘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여러 선임 교수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여 아주대학교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 유 성 주

2020-2학년도 에너지시스템학과/화학과 신입교원 유성주(연구실: 에너지센터 508-1, 내선: 2448, 이메일: sung-juyu@ajou.ac.kr, 웹페이지: www.nanofixlab.com)입니다. 아주대학교 화학공학 학사(2004-2010),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박사(2010-2016),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UIUC) 화학과 박사후연구원(2016-20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2019-2020)으로 근무 및 재직하는 동안 주로 수소 에너지, 이산화탄소 재자원화,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기초 과학 연구 및 공학적 실용화를 위한 응용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주대학교의 우수한 화학, 나노, 촉매, 소재, 공정기술과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과급성이 높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시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실험을 계획, 수행 및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스템을 종합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시기인 만큼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자기 소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유 중 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학기부로 소프트웨어학과에 임용된 유중빈이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오기 전 2017년에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리서치펠로우로 근무했습니다.

주 연구분야는 컴퓨터비전, 딥러닝, 머신러닝입니다. 저는 주로 컴퓨터비전, 즉 인공지능의 시각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간의 불일치를 줄여주는 도메인 정렬과 일반화에 관해서 연구중입니다. 이 기술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이 불일치가 학습모델의 성능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많은 분야에 적용하고 컴퓨터비전 기술이 좀 더 쓸모가 있는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연구와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가 저의 전공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직 설레기도 하고 수업을 처음 하느라 적응해가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많이 뵙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곧 잘 이겨내서 모두 웃는 얼굴로 캠퍼스에서 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공학과 이 재 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공학과 신임교원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신임교원으로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KIST에서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부교수로 재직하다가 KAIST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대학원 과정 동안 atmospheric aerosol-climate change mechanism을 밝히는 연구를 주로 하였고, KIST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이동분석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KAIST에서는 미세먼지의 AI를 이용한 미세먼지 노출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에서 크게는 미세먼지 측정/분석과 미세먼지 vertical profiling, 그리고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다른 분야와 협업하여 연구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이슈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닳고 싶은 교수이자 여성 공학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아낌없는 응원보내주시는 저희 학과 교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의학과 성형외과학교실 임 효 섭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2학기 발령받은 임효섭입니다. 코로나 8개월째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림대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8년만에 모교로 돌아오고, 또 과거에 지냈던 기숙사를 포함하여 캠퍼스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주된 임상분야는 안면 외상과 그로 인한 외상 후 안면변형 재건입니다. 중증외상 센터가 강점인 우리 아주대병원

이 저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좋은 환경입니다. 관심있는 연구분야는 3D 프린팅,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입니다. 재건이라는 것이 그동안 몸의 멀쩡한 다른 부위를 희생시켜 결손부위를 복구했던 것이었는데,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이 접목되면, 다른 희생없이 복구할 수 있는 진정한 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교로 불러주신 아주대학교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으신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또 그 명성에 덧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장 일 한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아주대학교 선배 및 동료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학년도 2학기부로 건설시스템공학과 부교수로 합류하게 된 장일한입니다. 아주 가족이 되기 전, 저는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에서 Lecturer(2017.4-2018.6)와 Senior Lecturer(2018.7-2020.8)로 Academic career를 시작하였고, 그에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수석연구원(2012.1~2017.2)으로 연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04), 석사('06), 박사('10)를 모두 마친 순수 국내파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시절부터 다학제 간 융합연구와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건설 신재료 및 그 적용 기술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한 결과가 인정되어 해외 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인재양성도 타고난 재주에 주목하기보다는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그 재능을 키우고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몸소 체감하던 COVID-19 Pandemic 시기, 조국의 학문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주로 미생물 기반 바이오폴리머 재료의 지반공학적 적용(Biopolymer-based Soil Treatment; BPST) 연구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micro-to-macro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바이오폴리머-흙 입자 간 상호작용과 토질역학적 거동을 규명하였고, BPST를 지반보강, 친환경 댐/제방 조성 및 하천정비, 사막화 확산 방지 및 황폐화 토양 복원, 토양 침식 억제, 비탈면 안정화 및 산사태 저감 등의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BPST를 이용한 지반 차폐 기술, 친환경 터널 굴착 기술, 실대형 토조를 이용한 각종 실증 연구, 산불 후 황폐화 토양 복원 기술 관련 연구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수종 융합 연구와 관련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 아주대학교가 미래 Sustainable Development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제 열정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과 장 한 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2학기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장한휘입니다. 탁류청론 지면을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 아키텍처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삼성리서치에서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연구를 수행하던 중, 아주대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분야인 컴퓨터 아키텍처란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적도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과거와 같은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에서도 특히, 컴퓨터 시스템 개발의 근간이 되는 성능 분석 기술을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연구하고 있습니다. CPU로 대표되는 컴퓨터 시스템 장치를 개발하는 데에는 2~3년의 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 개발 기간에 따른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현 전 개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설계 디자인을 시뮬레이션과 수학 모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집적도 기술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컴퓨터 아키텍처 디자인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 성능 분석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 등 산업계가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고, 학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선배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훌륭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학과 홍 경 수

문화콘텐츠학과에 부교수로 임용된 홍경수입니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KBS에서 예능, 교양 등 TV 프로그램을 15년여 동안 제작했고, 그 후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방송정책, 방송텍스트 분석(이데올로기 및 언어), 미디어 생산자 연구(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 기획인문학(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인문학의 응용) 등입니다.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도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

교수회 소식

교수회 총장평가 설문조사 실시

10월 6일(화)부터 10월 27일(화)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총장평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교수회가 주관하는 총장평가는 2012년 3월 교수총회에서 의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평가결과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서술형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에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전체 교수님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장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박성빈(편집책임),

박만규, 배상석, 윤호섭, 정태선, 최영화